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한 남새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남새를 재배하는가, 통풍과 관수체계를 어떻게 세웠으며 온실남새종자보장체계가 어떻게 서있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며 남새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오이, 도마도, 쑥갓, 부루와 같은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남새생산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당위원회를 통하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



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받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부

문, 모든 단위들에서 남새온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예보실, 국내통신실, 국제위성통신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

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기상관측사업이 현대화, 과학화되지 못한 결과 오보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하여야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상기후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일기예보에 필요한 자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들을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자면 기상수문국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 교통운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면서도 친절하게 통보해주기 위한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들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상수문국의 일군들과 연구사, 예보원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상관측과 예보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숲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음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매지게 닭아

놓은 병영구내길을 걸으시며 휴양소에 들어서서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고 싱싱하게 자란 살구, 감을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어대

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총포성이 울리지 않을 때에도 늘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

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도방어대는 싸움준비의 견지에서는 불침전함, 군인생활의 견지에서는 나무랄데 없는 자랑할만 한 멋쟁이섬이라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도방어대가 당중앙에서 좋다고 한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훌륭히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부대는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

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영웅인 방어대장 천재전동무와 부대정치위원에게 로령영웅칭호를 수여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으며 부대정치위원에게는 현지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본사기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열네번째 년률이 새기여진다.

사설

## 6. 1 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둘이 켜보면 주제

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서로 갈라져 대결하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준 6.15공동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민족의 주체적 힘, 대단결의 위력으로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분렬의 어둠이 질게 드리웠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국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분렬의 장벽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일대 전환적국면을 펼친 려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선군정치로 닦쳐드는 전쟁위험을 막고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였으며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상봉의 뜻깊은 나날들에 회담을 정력적으로 헌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자주통

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15공동선언을 리행해오는 나날에 력사적인 10.4선언도 마련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그이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이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함으로써 하루빨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효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련이어 집전한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있다. 남조선의 전《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

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리명박패당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이룩하고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는 전 《정권》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 남조선 《정부》에 의해 여전히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것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날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발효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으며 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통일도 성취되고 평화와 번영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나라의 통일은 민족중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옹호해나갈 때 실현될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 민족적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레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반통

일매국세력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른바 《신프로세스》를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남조선의 현 《정권》은 동족대결을 《원칙》으로 떠들며 대면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만을 조성하고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책전쟁연습에 매일같이 미쳐달뛰는가 하면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즈덴선언》과 같이 동족대결홍심으로 가득찬 반통일요설만을 퍼뜨리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책동은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한편으로 남조선당국은 진보단체들과 통일운동세력을 《중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살벌한 탄압의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6.15지지세력을 말살하려는 범죄적흉계의 산물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6.15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

여 반통일전쟁세력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굳게 련대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분위기를 적극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 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한길에 의연 험한가시밭길에 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불멸의 통일대강들이 있으며 장성강화된 통일애국력량이 있어 통일에국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야말것이다.